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9호 【루게 제25352호】 주제105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박영식 동지, 오수용 동지, 조용원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평양시교외에 자리잡고 있는 이 공장은 철관지붕재, 차열복합판, 수지판, 단결판, 수지창, 철롤타리, 쇠그물롤타리, 발포수지, 블록롤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건재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지난 기간 질 높은 건재제품을 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 주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준 전투과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기어이 관철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조국감산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조성물들과 더불어 깊이 전해질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드넓은 부지에 일떠선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자신께서 이곳에 찾아온 목적은 공장을 주체화, 현대화가 더욱 훌륭히 실현된 굴지의 종합적인 건재생산기지로 전면시키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의 연혁사숙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프로그래밍이 되었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려 놓으니 로력과 원료, 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높은 생산성과 건재품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생산건물들을 자체로 생산한 건재제품들 가지고 시공하니 보기에도 좋고 시원하다고, 공장주내에 감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나무들과 잔디를 정성껏 심고 가꾸고있는데 원림특화가 정말 잘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건재제품의 생산량과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문제, 금속근구와 경량화된 가구건재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

불명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로 늘어나는 건재품의 수요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였으며 머천도 잡아주시였을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을 확장할수 용대할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쉬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어머없는 공장의 능력확장공사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으며 공장사업에서 새로운 계선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공장관리운영

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는 조치를 위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고 우리 조국을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전면시키기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일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철관지붕재직장, 경량강철구조직장, 수지건재직장, 제철전시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지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각이한 형태와 규격, 색깔을 가진 수지창과 농망, 철관지붕재, 차열복합판, 수지판은 물론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철롤타리, 쇠그물롤타리, 각종 블록 롤을 생산하고있는데 공장의 제품이 다종다양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건재제품들은 기술적지표에 있어서나 미적가치에 있어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질 좋은 건재제품들을 리용하여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시켜 건재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데 대한 문제 등 공장주내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명당자리에 일떠섰고 생산잠재력이 대단하며 물질기술적토대로 그만한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들어보니 현대적인 건재생산공정들을 더 갖추어놓으면 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청춘공장으로 전면시킬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이곳을 주체화, 현대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대규모의 종합적인 건재생산기지로 꾸려 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2 편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인민생활향상과 국력강화, 조국산천을 더 아름답게 변모시키고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많은 건설품들을 마음먹은대로 팽팡 생산해낼수

있는 보배공장으로 더 훌륭히 전변시키자는 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자신께서 직접 맡아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우리의 자원과 원료, 우리의 기술로 건설품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구현된 공장, 주체가 철저히 선 실리있는 공장으로 멋들어지게 꾸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자고 하시면서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리신 씨앗을 우리가 잘 가꾸어 꽃으로 피워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천리마시대의 기수들처럼 살며 투쟁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리에 찾아오시여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대해같은 은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세계만방에 더욱 찬연히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해감 풀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3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전승63돐경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3돐을 맞이한 나라에 당과 수령의 명도따라 반제반미혁명전쟁의 백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환희가 넘쳐나고있다.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제2의 해방의 날을 뜻깊게 경축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시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번다시 구원해주시고 세계혁명무정사에서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아로새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밀한 영공술

의 빛나는 승리,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송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자랑찬 승리이며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강철의 조국수호정신은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힘있게 불어넣으려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되었고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3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궁전은 회세의 전승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승명도업적,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영웅조선의 새로운 전승신화를 창조해가는 승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상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태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을 복속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영웅전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전승 63돐 경축》이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영웅, 세대군인, 인민군후방가족, 원군공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반제반미투쟁선 평양지구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영수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

지, 김형해동지, 리만진동지, 오수용동지, 박법기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김수길동지, 조연준동지, 노광철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전쟁로병들,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섰다. 대회는 《7.27평화조약》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가 보고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며 최후승리로 비약해나가기》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승리를

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세대로 삼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과 자강혁명정신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용맹진해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반제반미투쟁선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기상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 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최후승리으로 비약해나가지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 제7차대회 가 열린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위대한 총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 민비마의 기상으로 전에는 비약을 이룩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7월 27일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유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제2의 해방의 날이며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은 긍지높은 승리자의 명절입니다. 위대한 전승의 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지나갔지만 미제를 통쾌하게 축 쳐내며 수직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반제반미혁명전쟁에서 백승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년대와 년대를 이어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웅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명에 따라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과 전사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랑찬 전투적위훈과 인민적투쟁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전체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인민군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박영식동지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만대하여 싸운 위대한 혁명전쟁이었으며 세계전쟁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렬한 전쟁이었습니다. 미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지》의 탈출과 남조선에 기어온 미제는 전조선을 제능들의 원천한 식민지로,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만들 야망 밑에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한 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으며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팔팔내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쟁전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은 실로 험준은 전쟁이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큰역한 전사전이었습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현대적무기와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된 제들의 방대한 특색공군력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괴뢰군과 일본군주주의자

들을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였으며 가장 이합집인 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불태웠으며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도처에서 비인간적인 살육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침략의 대적비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 정신도덕적타격을 인가하였으며 제들의 예상 밖으로 위급고 전승의 축보를 자랑스럽게 쓰아왔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밀한 영공술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침략자들과의 판가리결사전에 돌입시키시었으며 우리 인민이 자신들의 힘으로 공화국을 사수하여 남반부를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해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밝혀주시었습니다.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미제의 침략전쟁에 전인민적인 해방전쟁으로 맞서 싸우며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우위로 따돌린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비론들은 전쟁승리의 위대한 전 무적기초로 되었습니다. 전제적인 군사전략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계 단계마다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었으며 현대전의 특성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전법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위장정세하는 원수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심대한 결정적타격을 인가시켰습니다.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인 반공적전과 로워침정면, 강도전과 땅크사냥군조운동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명철무쌍한 전략전술과 전법들에 의하여 미제의 방대한 최선무장장비들도 백을 주지 못하며 《상승》과 《정예》를 자랑하던 침략부대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무우고흔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역경을 타과하여 전쟁국면들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략전술은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전쟁사들과 군사전략가들을 경탄케 하고있으며 우리 시대 반제혁명전쟁의 귀중한 교범으로 되고있습니다. 전쟁의 종착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전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사시사를 수놓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이붙어지는 포화속을 헤치시며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최전선전투가 있어 전사들의 가슴마다에 투쟁의 용맹이 용솟음쳤고 밤을 밝히시며 그이신 승리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시어 행복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이붙어지는 포화속을 헤치시며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최전선전투가 있어 전사들의 가슴마다에 투쟁의 용맹이 용솟음쳤고 밤을 밝히시며 그이신 승리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시어 행복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이붙어지는 포화속을 헤치시며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최전선전투가 있어 전사들의 가슴마다에 투쟁의 용맹이 용솟음쳤고 밤을 밝히시며 그이신 승리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시어 행복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지도, 1211고지와 351고지를 비롯한 격전장마다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불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며 영웅하게 싸웠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피뎠는 가슴으로 불붙는 적의 회군을 막아 들먹로를 열고 한몸이 그대로 작렬하는 폭탄이 되어 원수들에게 무리축출을 인가해 조국의 존도를 리로써 지켜 싸운 인민군용사들의 대충적영웅주의는 오늘날 천만군민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습니다. 단 4문의 로로 5만여명의 대적과 맞서 싸우고 4척의 어뢰정으로 중순 사광과 민승, 원수들에 대한 불라는 승리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습니다. 단 4문의 로로 5만여명의 대적과 맞서 싸우고 4척의 어뢰정으로 중순 사광과 민승, 원수들에 대한 불라는 승리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습니다. 단 4문의 로로 5만여명의 대적과 맞서 싸우고 4척의 어뢰정으로 중순 사광과 민승, 원수들에 대한 불라는 승리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습니다.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그 무엇이 로페도 징복할수 없다는 철리를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의 평화호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단죄하고 반미반전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싸우는 우리 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가렬한 전쟁의 3년만에 우리는 가비없는 희생도 많이 당하였지만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영원불멸한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무궁무진한 자강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밀착자들을 반대하여 신약같이 일미선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이 절대불변의 진리로 확증되고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었습니다. 가렬한 전과의 나날 조국의 한치 나라도 나라 남너로소모부가 전쟁의 승리를 굳게 믿고 침략자들을 쳐 물리치기 위한 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군지리교통계급을 비롯한 후방의 인민들도 적들의 맹목적이고 거세는 엄밀한 시련속에서도 맨손으로 피를 흘리며 발을 잡고 싸워 부러진 전사상과 전선원호에 모른것을 다 바쳤으며 강철지역에서 인민유격대와 소년빨비사를 뚫고 사랑하는 고향땅을 지켜 옹호해왔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세기 세계혁명무정사에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아로새기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번다시 구원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반미전승업적은 후손들에게 길이 빛날것입니다. 전쟁의 모습이 몇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여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미투쟁의 최전선에서 전승

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즐기 차게 이어왔습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이 땅에서는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회세의 전승명장들에서 마른새 주신 강철한 정치군사적위력으로 전쟁의 황화를 막고 반제반미대전승리를 거두어들이는 영광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명도를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장간첩선 《투어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 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미제의 거침없는 새 전쟁도발 책동을 결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위들을 민욕직하게 수호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암살책동이 쿠도에 달하였던 시기에 선군의 기치높이 조미해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 편편투쟁을 안아오시고 우리 조국을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것은 1950년대의 전승과 더불어 민족사에 특기할 업적입니다. 약속강국을 생본법칙으로 삼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의하여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격지 않은 나라 인민들이 동맹으로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있을 때 우리 인민이 수십년 세월 전쟁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 있었던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 선군혁명명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번의 전승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명도업적, 선군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새로운 전승신화를 편이 창조해나가고있습니다. 5 번 으 로 계 속

